

보도 일시	2023. 3. 15.(수) 11:00 (당일 석간 가능)	배포 일시	2023. 3. 15.(수) 06:00
담당 부서 <총괄>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허만욱 (044-200-5710)
		담당자	사무관 이승욱 (044-200-5718)

한·중 국제여객선 3년 2개월 만에 여객운송 정상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와 지역경제에 활력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코로나19로 그간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이 3월 20일(월)부터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최근 양국의 입국 및 방역 정책이 완화되었고,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를 감안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3월 20일(월)부터 한·중 여객선의 여객운송을 정상화하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과 위해, 청도, 단동, 연태, 대련, 석도 등 중국 11개항을 연결하는 15개* 국제여객항로의 여객운송이 정상화된다. 여객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 명의 여객이 이들 항로를 이용하였다. 다만, 여객 운송 중단 3년 2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만큼, 양국 항만의 여객 입출국 수속 준비와 승무원 채용 등 선사의 여객 수송 준비로 실제 여객 운송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위해, 청도, 단동, 연태, 석도, 진황도, 대련, 영구, 연운항) / 평택~(연운항, 위해, 일조, 연태, 영성) / 군산~석도

해양수산부는 한·중 항로 여객운송 재개에 대비하여 운항 여객선 15척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명·소화 설비, 화물 적재·고박 설비 관리상태 점검은 물론, 선박의 화재사고를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승무원들의 비상대응 역량, 여객 대피 유도 적정성 및 여객 대상 안전교육의 내실성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한국에서 운송재개 시 운항 전 점검, 중국에서 운송재개 시 입항 후 즉시 점검

해양수산부는 이번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 정상화로 여객선사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 평택, 군산을 비롯한 항만 인근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과 소상공인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10일(수)부터 동해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간의 국제여객선 운항을 정상화하였고, 지난해 10월 28(금)부터는 부산항과 후쿠오카, 오사카 등 간의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도 정상화하여 지난해 약 19천 명의 승객들이 이들 노선을 이용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 정상화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제여객선 안전과 방역에 각별히 유의하여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재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허만욱 (044-200-5710)
		담당자	사무관 이승욱 (044-200-5718)
<안전점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담당자	사무관 윤광상 (044-200-5818)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 한·중 국제여객선(카페리선)

